



로댕관

A. Rodin

생각하는 사람

静岡県立美術館
Shizuoka Prefectural Museum of Art

시즈오카 현립미술관과 로댕

1986년 현립미술관은 17세기 이후의 동서의 풍경화를 수집 테마로 출발하였습니다. 그 후 조각에 의한 인체 표현에도 눈을 돌려 로댕의 대표작 《칼레의 시민》을 엔트런스 홀에 설치. 이를 계기로 프랑스 국립로댕미술관과 시즈오카 현 사이에 우호 관계가 맺어졌고 로댕 작품의 수집 및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댕관이 개관된 것은 1994년 3월. 유리 지붕에서 자연광이 쏟아지는 독특한 럭비공 모양의 건축물에는 32체의 로댕 작품이 상시 전시되어 세계에서 도슨트하는 로댕 컬렉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귀스트 로댕

1840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조각가에 뜻을 두고 에콜 드 보자르 (프랑스 국립미술학교) 에 응시하지만 여러 번 실패. 조각가 카리에 벨로즈와 함께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공 조각을 제작한다. 188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장식미술관의 문 제작을 의뢰 받아 단테의 《신곡》을 주제로 《지옥의 문》을 제작한다. 로댕이 발표하는 작품은 그 참신함에서 항상 세간에 스캔들을 일으켰다. 1917년 세상을 뜨기 10개월쯤 전에 내연녀 로즈 뷔레와 결혼. 현재 로댕의 묘에는 《생각하는 사람》이 놓여 있다.



로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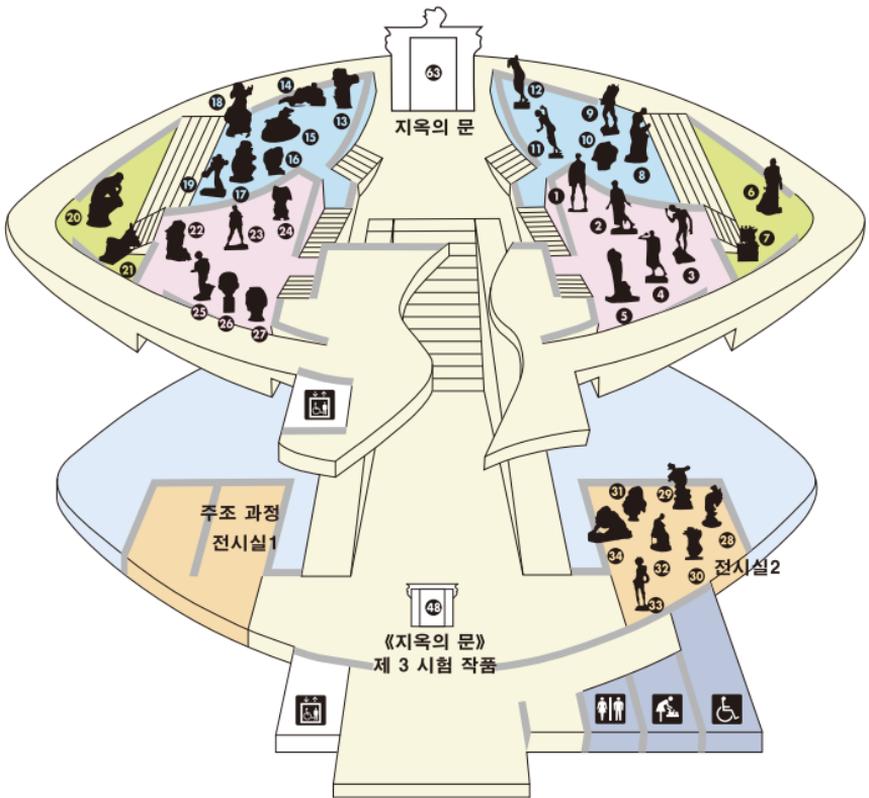
로댕 A

1. 《칼레의 시민》장 데르
2. 《칼레의 시민》장 드 피앵스
3. 《칼레의 시민》피에르 드 위쌍
4. 《칼레의 시민》자크 드 위쌍
5. 《칼레의 시민》앙드리에 당드르
6. 《칼레의 시민》유스타슈 드 생 피에르
7. 《칼레의 시민》제 1 시험 제작
8. 휘슬러의 뮤즈
9. 나신의 발자크
10. 발자크의 거대 두상
11. 영원한 안식
12. 《영원한 안식》의 토르소
13. 《망령》의 토르소
14. 파올로와 프란체스카
15. 달아나는 사랑
16. 《망령》의 두상
17. 항아리를 지고 있는 카리아티드
18. 퀴벨레
19. 여자 켄타우로스의 토르소와 절망하는 젊은이
여자 켄타우로스의 토르소와 여인의 토르소
여자 켄타우로서의 토르소와 이리스
여신 토르소

20. 생각하는 사람
21. 바커스의 축제
22. 《라·프랑스》습작
23. 바스티앙 르파주
24. 빅토리아 알베르트라고 불리는 여인의 토르소
25. 클로드 로랭
26. 보들레르의 두상
27. 하나코의 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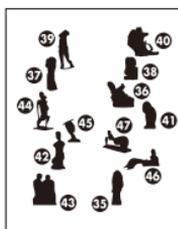
전시실 2

28. J.- B. 카르포 / 나폴리의 어부 소년
29. A.- E. 가리에 벨루즈 / 님프를 유괴
30. 하는 사티로소
31. A. 로댕 / 장미 머리장식을 한 소녀
32. J.- B. 카르포 / 슬픔의 성모
33. A.- J. 달루 / 젖 주는 파리의 여인
34. E. 프레미에 / 뱀 부리는 사람
A-L. 바리 / 사자와 뱀



브리지 갤러리

35. P. 고갱 / 오바리
36. M. 로소 / 고통을 느끼는 남자
37. E-A. 부르델 / 아폴로의 목
38. E-A. 부르델 / 로댕의 흉부
39. A. 마이올 / 《일 드 프랑스》의 토르소
40. C. 클로델 / 파도
41. C. 브란쿠지 / 포가니 가의 아가씨II



42. W. 렘브룩 / 여인의 토르소
43. E. 발락 / 독서하는 수도승들III
44. J. 립시츠 / 어머니와 아이
45. A. 아키펠코 / 《화장하는 여자》의 습작
46. H. 무어- / 누워있는 인체
47. A. 자코메티 / 누워있는 여자

지옥의 문

사상 여섯 번째로 구조된 로댕의 대표작.

1880년 프랑스 정부의 의뢰로 제작된

새 미술관의 문, 《지옥의 문》은

단테의 《신곡》을 테마로 한

200 체 이상의 인물상으로 이루어진 로댕의 대표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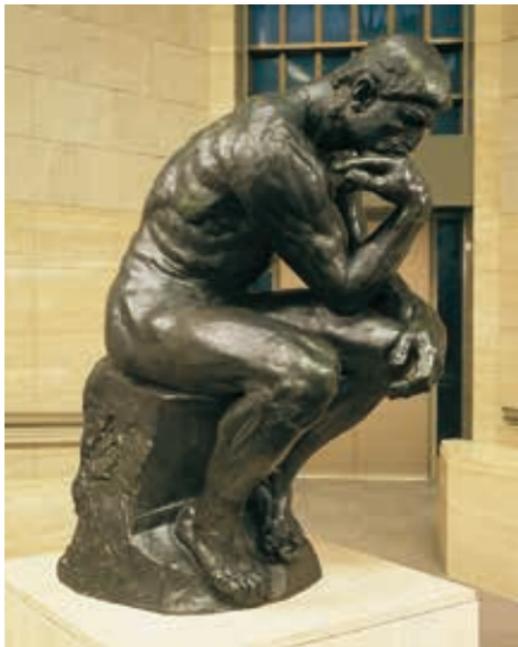


생각하는 사람

이 작품 앞에서 사람들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원래 《지옥의 문》 상단에 있던 《생각하는 사람》은 당초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인기를 얻은 《생각하는 사람》은 문에서 독립한 후 문에 있는 실물 크기와 동일한 사이즈(中), 그리고 대(大), 소(小) 크기의 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달아나는 사랑

대리석 작품으로 로댕은 무엇을 표현했는가.

‘푸기트 아모르(Fugit Amor)’란 라틴어로 ‘달아나는 사랑’이라는 뜻으로 남녀의 연애 관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레의 시민

시민들의 비탄이 들려오는 듯하다.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의 영웅인

6인의 시민상의 제작을 칼레 시는 로댕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댕이 완성한 것은

그와는 정반대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의 인간상이었습니다.

이 《칼레의 시민》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로댕이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머리에 장미꽃을 꽂은 소녀

테라코타(초별구이한 점토) 작품

청년 로댕은 벨기에에서 수행을 했는데

이 작품은 그 무렵에 제작된 것들 중 하나입니다.

머리에 꽂은 꽃 장식과

살짝 벌린 입술이

우아하고 관능적입니다.



로댕 본인이 제작한 석고 또는 테라코타 원형으로부터 주조된 것, 그리고 각 작품의 주조를 12체까지로 제한한다는 두 가지 조건 하에 주조된 로댕의 청동작품은, 로댕미술관의 엄격한 관리에 의해 모두 오리지널로 인정되는 것으로 프랑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By MUSEE Rodin 1983

《지옥의 문》의 등장 인물로서 비련의 테마로 많은 예술가들을 사로잡은 《파올로와 프란체스카》. 파올로의 발가락 아래의 대좌를 보면 로댕미술관이 1983년에 주조했다는 것이 그 저작권자명과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E. GODARD Fondr

또한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프란체스카의 둔부 아래의 대좌에는 주조를 한 에밀 고다르의 이름이 있습니다.



A. Rodin No 8/8

대좌에는 로댕의 사인과 주조번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조된 8체의 청동 중 이 작품이 여덟 번째에 해당한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